

요 약

1/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불확실성 확대로 급랭

- 1/4분기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 기준 83.2로 전 분기보다 7.9p 하락
 - 탄핵정국,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체감경기 급랭
- 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 모두 크게 하락
 - 1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와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각각 전 분기 대비 11.6p, 5.5p 하락
- 서울의 1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9p 하락했으나,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2.8p 상승

생활 자금 중심으로 가계 부채 보유 가구 10%p 이상 늘어

-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64.7%로 전 분기 대비 11.5%p 증가
 -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 1순위는 ‘주택 관련 자금’이나, 1~3순위를 합하면 ‘생활 자금’이 가장 높게 조사
- 대출 이용처는 ‘시중은행’이 78.5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카드사’ 45.3%, ‘보험사’ 6.8%, ‘저축은행’ 4.8% 등의 순
 -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이용처도 ‘시중은행’(76.1%), ‘카드사’(13.2%), ‘보험사’(3.9%) 순

정부 차원의 경기불황 대책 마련 시급

-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조기 대선에 따른 경기 활성화 기대감도 크지 않은 편
 - 서울시 내 구별 상공회 21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업황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락
 - 2016년 1/4분기(100%) 대비 업황 수준은 74.0%로 조사

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판매 부진과 방문객 감소

- 41.5%가 '판매저하 및 방문객 감소'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
 -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타격이 큰 편
- 정부 및 지자체에 바라는 정책 1순위는 '소비 회복 등 경기부양'으로 32.3% 차지
 - 소상공인들은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일정 수준 이상의 내수가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을 희망
 - 현 시점에서는 지자체보다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중요하다는 의견 부각
 -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내 업체 중심의 지원에 초점

전통시장별 특화 아이템으로 스스로 활로 모색

-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은 많이 개선된 상태이나 경기불황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준 상태
-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시장은 특색을 살린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자구책 마련
 - 타임세일, 시장 공용쿠폰,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, 청년층 주도의 야시장 등 추진

채워지지 않는 소비자 주머니에 대내외 악재까지 '이중고'

- 전년 동기(100%)와 비교한 명동 상권 매출은 내수침체와 중국 관광객 방문 감소로 40~50% 수준으로 급감
- 중국 바이어 의존도가 큰 동대문 관광특구의 매출 수준은 70~80% 수준으로 하락
- 홍대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, 매출 부진의 주 요인은 경기 침체
- 동남아 관광객 유치, 내국인 선호도 제고 등 시장 다변화 및 다양한 '볼거리'와 '즐길 거리'를 개발할 필요
 - 특히 동남아 관광객들은 K-pop이나 K-drama 등 한류 문화에 관심이 높아 쇼핑할 동뿐만 아니라 공연장 및 기획사 방문 등 다양한 활동 수행